

# 실내악 같은 조용한 사랑이야기

윤정선의 장편소설 「누나의 방」

‘사랑’이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장르에나 불변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주제이다. 인간들이 이야기하고 노래한, 모든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 사랑을 기점으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방황하는 관계들의 짜임이다. 이런 무궁무진한 역사성의 사랑주제는 너무도 다양하고 친숙하다 못해 통속적이라는 선입관을 갖게 되는데 그토록 ‘큰것’을 선불리 건드려온 시행착오의 결과로 낡고 낡은 이미지를 갖게 된 탓이라.

사랑 이야기를 요란하게 내걸고 나오는 책들을 기피해온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희곡 「호동」으로 문단에 데뷔한 작가에 대한 기대로 - 나는 희곡 「자유혼」을 연극 공연으로 보았고 그의 첫장편소설 「당신께」를 읽은 경험이 있다 - 조용한 실내악같이 정제된 사랑이야기라고 작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누나의 방」을 읽게 되었다.

계모가 데리고 들어온 ‘나’와 누나의 관계는 결국 사랑 이야기다. 그것도 흔히 말하는 비도덕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책에서 익숙해온 순수한 열정으로, 모든 부도덕성과 비현실을, 끝끝내 그 사랑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순수하고 고독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만나게 된다. 그 세계는 절실하고 치열해서 마치 내가 그토록 갈구해오고 고민해오던 순수한 자신의 일부를 아프게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이든 본질에서 너무도 이탈되고 변화되어온 매캐한 현실속에서 무공해(?)의 인간들이 그들이 처한 가정의 특수 상황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경로란 ‘누나의 방’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줄거리상의 논리 구조도 보인다.

사랑에의 순수한 열정! - 그것은 종종 비현

실적이고 막무가내여서 아름다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저 소설적인 것으로 군림해왔다 - 으로 들끓고 있기보다는 우선 누나의 순수한 시선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가 극도로 예민하게 와닿는다. 그런 세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작은듯하지만 실은 엄청나게 큰 우리의不可視의인 ‘상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보면 차라리 시가 떠오른다.

누나를 사랑하는 주인공 최승연의 순수함에 의 추구과정은 아프고 고독하지만 그가 차츰 부러워지게 되는 까닭은 끊임없이 느끼고 의식하며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숨겨져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첫소설 「당신께」와는 다르게 시사적인 문제에까지 일별해내고 있는데 80년대에 일어난 여러개의 사건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다루었다는 느낌도 있으나 이미 그 하나 하나의 사건분석에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작가의 의식 흐름에 와닿아 더 짙어지고 넓어지는 세계를 만나는 것으로도 의의는 있다.

동굴속에서 언어조차 없이 살았던 원시인에 게나 은장도로 정조를 지키던 조선시대의 여인 들에게나 문란하게 되어버린듯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나 사랑은 문화나 시대변천 이전의 아니 그보다 언어이전의 공동된 영원불멸성의 것이라면 「누나의 방」은 사랑이 왜 영원불멸성 이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무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를 느끼게하는 소설이다.

## 신인숙

서울시 중로구 명륜동 2가 192-3호

# 떠나고 싶은 우리들만의 나라

아베코보 「그 여자는 낮은 땅에 살지 않는다」

최근 번역 출판된 일본소설 「그 여자는 낮은 땅에 살지 않는다」는 우선 옮긴이가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층이라는 점에서 감각적으로 대단히 신선한 매력을 풍기고 있다. 그것은 번역이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어설픈 우리말로서의 문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무서운 8월의 어느날 한사내가 행방불명되었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모래언덕으로 곤충채집 나간 한사내가 모래구멍 속에 갇히게 된다. 모든 방법과 정열로 모래구멍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를 해본다. 집을 지키기 위해 사내를 모래구멍 속에 묶어두고자 하는 여인. 그 두 남녀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 묘사는 참으로 소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구멍 위에서 사내의 도망을 방해하고 두사람의 생활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전편에 흐르고 있는 다큐멘터리적인 수법과 서스펜스 넘치는 전개 속에는 인간존재의 상징적 모습을 추구한 작가 아베코보의 소설가적 자질이 유난히 빛나고 있다.

한번 소설을 잡게 되면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끈끈한 긴장이 시적 문장과 같은 쟁한 감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내와 섹스하는 장면을 건강하게 묘사하는 것이나 사내가 까마귀 뒷 속에서 물을 발견하는 장면은 독자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을 신화적인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 소설에서 잊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은 풍부한 비유와 정확성으로 특징되는 아베코보의 문체이다. 이 또한 소설가를 지망하는 작가 지망생에게 많은 연구의 관건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여인의 자궁외임신으로 사내는 그동안의 무수한 탈출노력을 마침내 포기하며 “도망할 방법은 또 그 다음날에 생각해두 무방할 것이다”로 이 작품을 끝을 맺는다. 여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우리 인간성의 한계 또한 이 작품의 독특한 심리적 영역으로 평가된다. 말없이 다가오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여운이 독자를 ‘짱’하게 만든다.

1976년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작가 중 3대 작가로 뽑힌 아베코보의 출세작인 이 소설은 일본의 요미우리문학상 수상작품으로 20세기 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읽고 넘어가야 할 소설이며, 20세기가 자랑해야 할 소설로 평가된다. 이미 세계 20여개국어로 번역출판된 세계의 명작만큼 건강하고 매력 있는 소설임에 분명하다.

## 윤행로

서울시 강동구 길2동 122-1번지

# 한국의 출판계가 인정하는 편집학교

예약 7월 10일



편집을 소설보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덕택에, 호기심으로 입학해서 전문인이 되어 나가는 곳. 취미가 직업이 되는 편집자의 ‘끼’를 소중히 생각하는 곳. 감성을 편집에 싣고, 문화의 힘을 믿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편집을 아는 사람이 교제에도 능숙하듯 수료생들의 인간관계도 베스트셀러! 그래서 취업률도 자타가 인정하는 ‘95%’입니다. — 본 센터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판·잡지·사보·신문사 취업대비

수료생들의 취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시기를 놓치시면 인력채용이 원활치 못하므로 지금 곧 문의하십시오. (본 센터 D·M발송물 참조)

##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대) 812-1715-6 Fax 814-3387  
노량진전철역 앞

# 소련학자 류비세프의 치열한 삶

그라닌의 「時間을 지배한 사나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 그 사회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 심지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다'라고까지 표현한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한 인간이 시간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물론 '타임머신'과 같은 영화에서처럼 어떤 기계의 힘에 의한 방법이 아닌 인간 자체의 성실성과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에 의해서 말이다.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일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에서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소련의 학자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류비세프와 그 주변 이야기를 그린 일종의 소설이지만 허구가 아닌 사실의 기록이다.

작가는 1949년부터 주로 과학자의 실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는 소설을 써온 소련 작가이다.

작품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엄숙한 편인데, 재미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읽어가면서 나 자신과 슬며시 비교하여보기도 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류비세프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엄숙하기 때문이다.

책 뒷부분의 작가의 말에서도 밝혔듯이 1974년 소련 「아브로라」 1·2호에 발표된 직후부터 많은 독자들로부터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1916년 청년시절에서 1972년 사망한 그날까

지 56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철저히 계획, 기록, 관리, 통제, 평가한 류비세프는 이른바 '시간 통제법'이라는 방법으로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살았고 엄청난 양의 일을 하게 된다. 생물학, 곤충학, 과학사에 정통하고 철학, 역사, 문학에서도 전문가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르며,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이 책에는 소설발표의 계기가 되었으며, 류비세프의 '시간통제법'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 아닌 일기 이야기로부터 그의 유전자 이야기, 그를 닮은 사람들 이야기 등에 이르기 까지 흥미진진한 내용이, 그러나 결코 재미로만 읽을 수 없는 치열하고도 엄숙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시간을 얼마나 아끼고 또한 소중히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간철학이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학문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태도 등 시간의 철저한 통제에 의한 한 인간의 일과 삶의 태도를 체험함으로써 나의 이성을 정돈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사람이 삶을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려 한다면 류비세프의 삶을 간접체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옥영정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233번지 산호 APT. 11동 305호 · 군인

# 광부파업으로 보는 민중의 모습

에밀졸라의 소설 「제르미날」

“하나님, 내 남편과 자식들을 데려가 주소서.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 모두를 죽여주소서.”

흡사 한편의 지옥도를 보는 것 같은 소설 「제르미날」은 에밀졸라의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도대체 한 인간이 쉼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듯 처절한 수도 있을 것인가. 위의 귀절은, 장기간의 파업에 들어가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에 시달리는 한 늙은 광부의 아내의 기도다. 노동과 자본의 투쟁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미해결의 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간세상의 숙제인지도 모른다. 평균 섭씨 사십오도를 기록한다는 막장의 끝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노동은, '과연 인간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더구나 그 가혹한 노동 뒤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배불리 먹기는 커녕, 설 수 있는 휴식의 공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유일한 취미활동이 약간의 외상술을 마시는 것과 무분별한 섹스라는 사실은,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오히려 가족이 이웃이니 남녀간의 사랑이니 하는 말의 등장이 「제르미날」에서는 어색하고 우스워보일 정도이다.

“그날그날, 하루치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자포자기의 인간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 그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또 그 모여진 힘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책을 읽는 동안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제르미날」에는 사실 거의

모든 유형의 인간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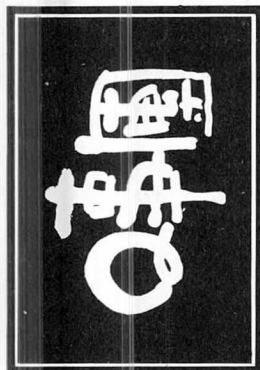
한바탕 전쟁과도 같은 광부들의 파업현상이나 생활의 비참상을 목격하고도 그저 낭만적인 그 무엇으로 처리하는 귀족 처녀들, 지도자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지나친 흥분과 자기도취에 빠져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주인공, 위선자로 매도당하는 한 개량주의자, 그 인식의 근거가 지독한 허무인 무정부주의자, 뒤늦게 깨닫고 행동하는 자의 대열에 서는 늙은 광부들, 이 모든 비참과 부르조아의 악덕을 모른 척하고 오로지 신의 은총만을 구하는 마을의 신부...

인간 개개인의 결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터내셔널'이라는 지도단체가 한낱 야심과 허영으로 인한 내부싸움으로 와해되는 광경을 볼 때, 광부들의 목숨을 건 파업투쟁은 무모하고 덧없어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에밀졸라가 「제르미날」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진하는 민중의 모습이다.

“나는 이 책이 미래를 예언하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졸라는 말했다. 그의 말은 적중하여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만 낸 채 광부들의 파업투쟁은 실패로 막을 내린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소생하는 봄빛속에서 은밀하게 발아하는 저 민중의 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신혜옥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1·회사원



참신한 기획,  
기발한 아이디어,  
젊은 감각들이 모여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결작만을 고집합니다.

■ 표지 디자인 · 본문편집 · 교정 · 제작 · 전산 · 수동사식  
영화 · 비디오 홍보디자인 및 PR기획  
기업 · 관공서 · 학교 등의 홍보기획 및 디자인  
상품 · 상호 등의 디자인 및 카피

서울·중구 충무로4가132-5 Q빌딩3층  
PHONE: 278-5883 / 279-1323  
FAX: 278-5883

(구) 동보기획

# 단색 스캐너

##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읍셋인쇄, 본문 ~ 표지까지

##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5가2-23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 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121-130 서울시마포구 구수동21-1 ☎ 718-6260